

# 제주사회복지신문

제주사회공헌네트워크와 우도지역주민들의 사회공헌 콜라보

## 나눔의 온기 '어여와요, 웰컴 투 우도' 호응

도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공헌네트워크 협력  
지난달 25일...참여기업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중)가 주최하고 '제주 사회공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주관한 사회공헌활동이 지난달 25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도에서 진행됐다.

'어여와요, 웰컴 투 우도'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사회공헌활동에는 (주)케이티앤지 제주본부,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주)카카오, 제주관광공사,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주)케이티앤지 제주본부는 식료품을 담은 '사랑나눔상자' 130개를 제작해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며

나눔의 온기를 전했다.

또한,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을 진행했으며, (주)카카오와 제주관광공사는 각각 청소년 IT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제주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도지역 어린이에게 유익한 즐거움을 선물했다.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우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톡톡 제주' 캠페인을 진행해 우도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기업들의 전문성이 반영된 활동들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네트워크'는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정보교류를 위해 지난 해 4



▲ 지난달 25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와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진행한 사회공헌활동 '어여와요, 웰컴 투 우도'가 마무리 됐다. 사진은 '어여와요, 웰컴 투 우도' 프로그램 진행 모습.

월에 출범하였으며, 현재 9개 기업 및 기관 ((주)카카오, (주)디케이서비스, (주)KT&G

제주본부,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마사회 제주지역

본부, 제주대학교병원,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이 참여하고 있다.

## 제주 복지기준선 수립 도민토론회 마련

오는 12일 메종글래드 크리스탈룸에서

제주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연구원과 제주사회복지연구원(센터장 김정득)은 오는 12일 메종글래드 크리스탈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150인 도민토론'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발 맞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수립에 앞서 도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는 9개 복지 분야에 대한 영역별 복지기준선 전략 설정과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 예산 확대를 위한 주요대상 및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9개 복지 분야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영역인 사회서비스(돌봄 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7가지와 공공부조로서의 소득, 그리고 제주 환경적 여건을 고려한 안전을 포함했다.

토론회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제주사회복지연구원 (064-722-4509).

### 지면소개

- 종합 ..... 2면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 사회복지소식 ..... 4면  
수준 높은 민요-무용 공연 큰 호응
- 오피니언 ..... 6면  
뜻뜻한 제주, 복지기준선 1.0 수립
- 기획 ..... 7면  
어르신 편안한 노후생활 제공 호응

##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또다른 '나눔'입니다

장애인 생산품에는 남다른 정성과 맘의 결실이 담겨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매를 바랍니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명	판매 제품	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	702-1469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설명	생산 제품	연락처(사무실)
길직업재활센터	세탁업, 위생물수건, 종이컵 등	796-5777
어울림터	간장, 된장, 고추장, 양초 등	732-0295
에코소랑	화장지류, 발효과실원, 천연허브제품 등	732-2288
엘린	청소용역, 숙박업(엘린호텔) 등	752-2299
일배움터	화훼 및 농산물(각종화훼, 카페(플로베)사업)등	723-9104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복사용지류, 재제조 카트리지, 세탁업, 섬유제품류 등	702-7851
평화의 마을	육가공류(소시지, 스테이크, 돈가스, 햄 등)	794-6277
한리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과, 제빵(빵류, 쿠키류, 케이크류) 등	799-9225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수막, 상패, 도자기, 각종판촉물 등	783-9920
희망나래일터	인쇄업, 쇼핑백, DM발송, 문서화일류 등	751-5152

제주도의회의정소식

#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수준 향상 기대

##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제5회 수요좌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연구실은 지난달 2일 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회 수요좌담회 '사회서비스원, 그것이 알고 싶다'를 개최했다.<사진>

이 날 좌담회에서 남진열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사회서비스원의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책으로, 지난 1월 서울과 경기, 대구, 경남 등 4개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남 교수는 "고령사회가 도래하고,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아동 등 사회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공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 역할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면 제공인력(종사자) 차원에서는 고용 안정성 강화와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질 높은 일자

리가 확대되고, 체계적·전문적 교육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남 교수는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가 직영했을 때 장점인 안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했을 때의 장점인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소년 육성 시스템 기반 조례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청

의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쏠림 현상을 방지해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의 중점 금지 규정을 두었다.

또한 도내 청소년단체 지원과 청소년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 유관기관,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

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도와 교육청을 아우르는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공모

(재)삼성꿈장학재단(이사장 노성태)은 오는 29일까지 '2020년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은 지역적·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지원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교육복지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사업은 교육자원이 부족한 농산어촌, 도시빈곤 밀집 지역 등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배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역형 교육복지사업

과 특정 분야(과학·IT, 다문화 교육, 청소년 문화기획, 축구, 기초학습능력)의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전문형 교육복지사업이 있다.

특히 2020년 공모에서는 읽기,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교육을 전담하는 조직 체계를 가지고, 계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활동을 수행 혹은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 기관 및 조직이다.

배움터의 예로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쉼터, 그룹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안학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은 약 70억 원이 투입되며 230여 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삼성꿈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sdream.or.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난치병학생 교육·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훈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계획'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증 질환으로 학교 교육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사진>

신청대상은 제주도에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4대 질병(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질환)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이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나 휴학한 학생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또는 의료기관 통원·입원 치료



시 사용한 숙박비·항공료 등이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접수기간 내에 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4-710-0601~0607) 또는 훈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 접수 이메일 carejejuedu@korea.kr 로 신청하면 된다.

**758@137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10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돈육 220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 2,867개 ▲(주)쿵스토퍼 제주이도점=빵 282봉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 151모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160개 ▲대한축산유통=돼지등뼈 120kg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2,751개 ▲뚜레쥬르 제주탐라점=빵 518봉 ▲모양=빵 430봉 ▲미인빵=빵 132봉 ▲바바오럼=빵 85봉 ▲비엔뉴아즈=빵 119봉 ▲신제주식품=식료품 11개 ▲이든이네=건어물 6박스 ▲정필이오메기=떡 135개 ▲제주보리춘=보리빵 63개 ▲참새방앗간=떡 991개 ▲파파무베이커리=빵 21개 ▲해맑은 떡방= 158개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9년 9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430,000	2,64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355,000	355,000
복지사업후원	990,000	2,504,630
푸드마켓후원	2,995,000	96,230

\* 후원자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봉식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편집기자 : 김승지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18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를 찾습니다

### 도사회복지협의회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제10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를 추천 받는다.

추천은 제주도에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대표가 할 수 있으며 명예의 전당 등재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추천대상은 봉사실적의 현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 등을 고려해 추천기준

에 한 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경우다.

추천기준은 ▲자원봉사 활동기간 20년 이상 활동중인 자 ▲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중인 자 ▲인증관리 DB 시스템(VMS)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은자다.

신청은 추천서, 공적 요약서, 공적조서, 현

지확인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jejubokji@hanmail.net)로 제출 하면 된다. 명예의 전당 등재자에게는 2020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시 등재 기념 순금배지 및 기념패가 수여되며, 공적 및 활동사항이 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명예의 전당' 및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명예의 전당'코너에 등재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64-726-5786)으로 하면 된다.

##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나눔 실천 이웃돕기 나눔상자 500개 전달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송철희)는 지난 9월 28일 제주 롯데런파크 '꿈의광장'에서 이웃 돕기 나눔상자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1,000만원 상당의 나눔상자 500개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종)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에 전달했다.<사진>

이번 나눔상자는 도내 푸드뱅크·마켓에서 기부식품을 제공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임직원 7종을 담아 만들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2009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1,000만원 상당의 나눔상자를 만들어 꾸준히 제주도푸드뱅크에 전달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송철희 본부장은 "우리 사회 결식을 완화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웃 사랑의 마음을 담은 나눔상자 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눔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나눔 개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나눔(시설장 안철민)은 지난 달 1일부터 개원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사진>

행복나눔은 서귀포시 위미리에 위치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행복나눔(대표이사 백인협)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

의 단기거주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복나눔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통해 장애인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장애인에게 교육지도, 자립, 여행, 견학, 취미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나눔 관계자는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시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 모두 행복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원식은 오는 23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 김영순씨 김만덕상 수상

제1회 사회복지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 김영순(71세·사진)씨가 제40회 김만덕상(봉사부분)을 수상했다.

김영순 씨는 1987년 제주양로원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제공,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가정방문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 및 물품후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김 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년 동안 월 1회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30년간 나눔과 베품으



로 묵묵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펼쳐 2010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하는 제주사회복지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1호 인물로 등재되기도 하였으며, 2013년에는 자원봉사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 지역사회봉사단, 이해관계자 교육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는 지난달 21일 협의회 1층 바람소리홀에서 지역사회봉사단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교육을 진행했다.<사진>

이해관계자교육은 지역사회봉사단 팀 리더, 봉사

자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기술교육·소통능력 등을 주제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봉사단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봉사자들이 시설의 어르신들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엘씨어로 공방 문체영 강사를 초청해 비누꽃바구니 만들기, 스칸디아모스 액자 만들기 등의 원예공예교육으로 진행됐다.

최미세 아우름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원했던 교육을 받게 되어서 좋았고,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듣고 싶다" 말했다.

## 홍익아동복지센터장에 허철훈씨 취임

허철훈(63세·사진)씨가 지난 달 18일 홍익아동복지센터 제5대 시설장으로 취임했다.

허철훈 신임 시설장은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제주시에 기초생활보장과장을 역임했다.

허 신임 시설장은 현재 예천 노인요양원 인사위원, 춘강장애인종합복지관 인사·운영위



원, 도립요양원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④

늘푸른봉사회(문화·예술)

수준 높은 민요·무용 공연 큰 호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늘푸른봉사회(회장 윤재봉)'는 지난달 1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공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 날 봉사활동은 한유심 한빛누리에술단장의

사회로 국악, 가요, 한국 무용 등의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이·미용, 안마 봉사, 점심식사 대접, 경품추첨 등으로 진행됐다. 공연에 참여한 회원들은 한빛누리에술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번 수준 높은 우리민요와 무용 공연을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윤재봉 회장은 "회원들 모두를 가족 같은 마음으

로 봉사에 임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변하지 않고, 지금 하는 것처럼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늘푸른봉사회는 2016년 6월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된 후 30여명의 회원들이 분기별 1~2회씩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도내에서 공연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을 선정하고 미리 방문해 이용 인원 파악, 음향설비 확인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사회적 기업 성공 가능성 높인다

사회공헌 아카데미... 사회성과 인센티브 소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가 주최하고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19년도 제주 사회공헌 아카데미' 10월 강의를 지난달 16일 협의회 1층 바람소리홀에서 진행했다. <사진> 이 날 아카데미에서는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실장이 강사로 나서 '사회적 가치 측정의 이해'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사회적과 인센티브란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측정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박 연구실장은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투자금·인재 부족 등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청년들은 창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게 하려는 것"이라고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연구실장은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두가지 축은 '사회적 가치 측정'과 '금전적 인센티브'로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성장과 혁신의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

서귀포시는 지난달 17일 서귀포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사회복지사 및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노인 인구의 급격

한 증가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조기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보건, 돌봄, 의료 등 다양한 맞춤형 통합 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분야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지역으로 선정, 본격 추진에 앞서 선도사업 전담팀 구성,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 개시 등 기반 구축을 완료했다.

소/식/마/당

(무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협회장 안원식)가 주최하고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 초자와수다'가 지난 9월 26일 우도체육관 등에서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마술공연, 장수사진 촬영, 발마사지/안마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실버스타연극단 10명 선정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은 지난달 7일 실버스타연극단 운영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열고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오디션에는 어르신 14명이 참여해 개인의 기량과 감춰진 끼를 발휘했다. 실버스타연극단은 지난달 21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내년 6월 까지 총 8회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웃사랑 물품 전달



Kt cs루키어린이집(원장 김희정)은 지난달 18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직무대행 부형종)가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을 방문해 이웃사랑 물품(라면 11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물품 기부는 나무반 유아들과 부모들이 청골청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으로 이뤄졌다. 기부물품은 사랑나눔푸드마켓 이용자에게 전달된다.

전국신장장애인 지도자대회 성료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회장 김우찬)는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퍼시픽호텔에서 '2019 제8회 전국신장장애인 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비롯한 지역문화 이해의 시간을 통해 신장장애인을 위한 미래 비전 제시와 지역 협회 간 화합 도모, 정보 교류 등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성과 보고회



제9회 서귀포시 지역아동센터연합 사업성과 보고회가 지난달 19일 서귀포시내 지역아동센터 25곳이 참여한 가운데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모여 1년간 이뤄진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와함께 우수 종사자 시상과 레크레이션, 체험부스 등이 진행됐다.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전개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지난달 1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송은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5~19일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 신고전화번호(112) 등을 홍보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소/식/마/당 (무순)

경로당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이도주공 1단지 경로당(회장 문화순)은 지난달 7일 노형점 행복마트 베이커리(사장 양왕승)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로당과 행복마트 베이커리는 경로당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한다. 한편, 행복마트 베이커리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페스티벌 만장상 수상



제일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순희)는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58회 탐라문화제 '청소년예능페스티벌'에 센터 아동·청소년 25명이 참가해 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아동의 플루트 연주'를 통한 지역사회 재능기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근속자 해외문화 체험



아가곶드래(원장 이민숙)는 지난 9월 29~10월3일까지 10년 근속 장애근로자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민숙 원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새로운 도전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장기근속자들을 위한 해외문화체험을 계획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직업생활에 대한 의욕을 높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꾸준한 이웃사랑 물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은숙 주무관은 지난 1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행 부형중)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에 이웃사랑 물품(상품권 85만원 상당)을 기부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기부하고 있는 강은숙 주무관은 각종 경조사시 답례품으로 받은 상품권 모아서 전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 전달식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최근 제주 칼호텔에서 5,700만원 상당의 승용차 4대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제주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사회복지시설 업무와 입주인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서현주 제주은행장,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 9월 20일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 시설 장애인과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암 경로당을 찾아가 위문품도 전달하고 안마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송죽원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으로 우리들도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가족 간 소통 시간 마련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문정신)는 최근 부산일대에서 아름다운 부모님과 자녀들의 힐링캠프의 일환으로 도외 나들이를 실시했다.

발달장애인과 부모님들에게 다양한 경험 기회를 확대를 목표로 진행된 이번 힐링캠프는 가족 간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센터와 부모님에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다.

베트남문화체험 여행 실시



서부장애인복지센터(센터장 안원식)는 제스코마트 강동화 대표의 후원으로 지난달 14~18일까지 발달장애인 해외문화체험여행 두 번째 이야기(베트남편) '썬짜우~ 하노이!'를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여행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해외문화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합대회 길ტი기 공연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최영열) 희망나래풍물패는 지난 9월 20일 사라봉체육관에서 열린 소규모 장애인시설 단합대회 길ტი기 공연을 펼쳤다.

희망나래활동센터 관계자는 "희망나래풍물패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됐으며 신나는 풍물놀이 공연으로 장애인시설 단합대회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문화예술분야 역량 강화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 VIVA청춘예술단은 최근 애월읍 소재 주사랑요양원을 방문해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흥겨운 가락 연주와 무용, 댄스스포츠 공연 등 재능봉사 활동을 펼쳤다.

예술단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성공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 기부금 전달 훈훈



제주노농봉사단(회장 김유택)은 지난 9월 29일 제주몽생이그룹(대표 김완숙)을 방문해 정기 기부금을 전달했다.

제주노농봉사단은 매월 1회 제주몽생이그룹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레포츠, 오락, 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놀이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육구와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노숙인 사회적 소외감 극복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자)는 최근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 노숙인들을 위해 여성중앙 제주도지부회,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추석명절 위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노숙인들이 서로모여 소외감으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고 노숙인들 간의 화합을 통해 사회적 소외감 극복과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 됐다.

시론

### 「땃땃한 제주, 복지기준선 1.0 수립」

2019년 비로소 제주 도민의 복지 기준선이 수립 중이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최초로 공식 발표되면 1.0이란 버전이 붙게 되고 그 기능이 개선되면서 숫자가 커진다. 제주 도민 복지기준선 역시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되어 앞으로 그 기준을 더욱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주 복지기준선 1.0'이라 이름 붙여도 무방할 것이다.

얼마 전 시청 고위공직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복지는 전 도민이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 도민께서 관심 있어 하는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 등을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가 그분 말씀의 요지였다. 아마 '복지'의 대상자를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쯤으로 인식하는 듯하였다. 너무도 신념에 찬 어조로 말씀하셔서 복지전문가인 나로서 그 어떠한 반론조차 제기하지 못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복지의 영역이 언제부터 확대되었는지 생각해 보니 아마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부터인 듯하다. 이때부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수많은 복지제도는 '사회서비스'라는 영역으로 한데 묶여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총 7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용복지, 교육복지, 주거복지..등 다소 낯설지만 융합적 용어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이다. 예전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지도 오래됐다. 주민생활과 밀착된 대부분의 민원행정이 '복지'업무가 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보장은 평생사회안전망을 통해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라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제주의 복지기준선 수립을 통해 제주도민의 '시민권'과 '사회적 권리'가 과연 어디 수준까지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었다. 지난 여름 9개 영역에 대한 기준선 논의를 위해 30여

차례 학계 및 연구자, 시민단체, 해당 주무부처공무원, 도의원, 서비스당사자 등이 모여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마침내 정리를 마친 제주 복지기준선 1.0은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장 뜻깊은 성과를 한 가지 꼽는다면 9개 영역에서 도민의 권리만 찾은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민이 지켜야 할 약속 중 하나는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 센터에 알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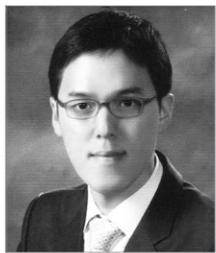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도리이며, 그것을 전제로 우리의 권리를 더 당당히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김정득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66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법적 절차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학교 생활에서 아이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단순한 다툼과 화해가 아니라 폭력의 수준이 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해진다.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아이들의 싸움이 부모들의 감정문제로 확대되어 법률 분쟁이 시작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1차적으로 교육 현장의 자치 해결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위 '자치위원회' 혹은 '폭대위'라고 부른다)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 내린다.

이 조치를 모두가 수용하면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결정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에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구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구분에 따라 조급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에 대해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도청)에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

다. 이후 재심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을 차례로 혹은 바로 소송을 통해 다룰 수가 있다. 조치를 받는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의 경우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고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전학이나 퇴학 조치에 대한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심판(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경우와 동일하지만 행정심판을 담당 기관이 다르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기고

### 장모님

아이들 커 가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며 일상의 행복들로 알알이 엮어갈 무렵, 치매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되어, 장모님의 몸과 마음을 기억 저편 어지러운 혼미 속으로 몰고 갔다.

치매가 발병하기 전에는 자가용으로 모시려는 딸과 사위를 뿌리쳐 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50여 분 거리의 시골집과 딸의 집을 오갈 만큼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골집 이웃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할머니께서 가끔씩 식사를 하시다 밥을 벽에다 뿌리신다고.. 이상하게 생각한 내가 장모님께 이 일에 대해 여쭙면 심드렁하게 대답하시곤 하여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보다 하고 그렇게 꽤 시간이 흘렀다.

그 행동이 바로 치매의 시초였다는 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시작된 장모님의 기이한 행동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갑자기 나가서 동네를 배회하는 횡수가 많아지셨지 않던가. 그제야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야 무작정 장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 결코 병원 신세는 지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지만 병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딸도, 이 사위도 힘에 겨웠음을 실토한다.

그렇게 잠시 병원에 의지하려 할 때면 금세 알아차리시고는 어서 집에 가자고 안달하셨던 당신. 어린아이 달래듯 어르고 달래면서 입원했다가, 호전의 낌새가 있다 싶어 퇴원하면 다시금 방안에서 대소변을 누어 버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배설물을 벽에다 바르기까지...

장모님의 노환은 점점 깊어졌다. 사위와 아들 몫을 하느라 지나간 시간을 기도로 자신을 위로하며 보낸 지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이렇게 숨죽여 외쳐 본다. 10여년 남짓 투병 속 지나간 망각의 늪에서 사시다 사랑하는 딸과 사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가신 당신!

항상 하늘나라에서 우리 네 식구를 보고 계실 장모님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지난 기일 때는 처제네 가족들과 추모의 시간을 같이 하면서, 밤이 늦도록 살아생전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가족은 울고 웃고 했다.

“장모님! 알고 계신가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장모님께서 제게 주신 넘치는 사랑과 손자 손녀들이 간직하는 할머니와 함께 한 고운 추억들... 빛 하나 바래지 않고 바로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ですよ.

장모님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도 더 이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곳,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부디 영면(永眠)에 드소서.”



허철훈  
홍익지역아동센터장

시설탐방

▶ (109)미타요양원

# 어르신 편안한 노후생활 제공 '호응'

## 2007년 설립...현재 73명 생활

“입소 어르신에게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는 곳이 있다. 바로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미타요양원(원장 김영국)**이 그 주인공이다.

미타요양원은 지난 2007년 성산 지역 내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는 입소 어르신과 직원, 지역사회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원 미달, 직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구인 난 등 요양원 운영이 녹록치 않았다.

김 원장은 “미타요양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평한 업무분담, 환경개선 등 꾸준한 노력을 실천했다.”고 말했다.

미타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 인지 프로그램과 노래 부르기·영화상영 등의 여가 프로그

램, 오일시장 나들이, 외식문화체험, 어르신들의 추억을 되짚어보는 내 고향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과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역할연기 경연대회’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EM 발효액 사용’, 함께하는 근무수칙 선서, 아침체조, 실내산책 등 미타요양원만의 다채로운 특화프

로그램도 진행해 입소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밖에도 식사 조리부터 배식까지 위생적인 식사를 위해 복장착용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한 누구나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무수칙과 규칙을 새로 제정해 직원 간 화합을 도모했으며, 직원 복지를 위한 도외연수와 워크숍,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고 있다.



▲ 미타요양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 역할연기 경연대회 등 특화서비스 효과 특출 사랑의 쌀 나눔행사 등 지역사회 나눔 실천

그 결과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는 높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대할 때 항상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타요양원에서는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다. 어르신들의 컨디션부터 간단한 상황변화까지 보호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간호팀이 매일 나눠서 건강 체크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의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차곡 차곡 쌓아 올린 신뢰도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났다. 직원들과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현재는 정원을 모두 채운 73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입소를 위해 대기하시는 어르신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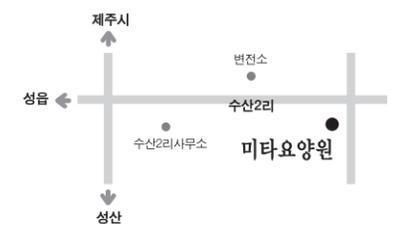
김 원장은 “어르신들이 진심을 알아봐주시는 것 같다.”며 “요양원에 입소

해서 눈에 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는 어르신을 볼 때면 감사하기도 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돌려주기도 했다.

개원 12주년 기념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사랑의 쌀을 성산읍에 기부했으며, 지역 환경정화 봉사, 지역 내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공연을 진행하면서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 원장은 “청결한 환경, 감동을 드리는 서비스, 특화프로그램 개발, 공평한 업무분담으로 어르신에게는 입소하고 싶은 시설, 직원들에게는 다니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소개 ④ 평화의 마을

## 건강한 먹거리 제공 위해 노력

제주에는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호부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확대를 돕고자 시설과 함께 주요 생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평화의 마을’을 소개한다.

#### ▲ 평화의 마을 소개

평화의 마을(원장 이귀경)은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직업평가와 직업 상담을 통해 세분화된 전 공정에 본인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직무 배치를 실시하며, 경제적 소득활동을

통한 자립생활과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 ▲ 축산물 가공업

평화의 마을 수제햄과 수제 소시지는 제주산 무항생 흑돼지와 닭고기, 생야채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보존료나 색소, 인공조미료, 대두단백, 아질산나트륨 등 손쉽게 유통 기한을 늘리거나 인위적인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건강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프리텐하임’과 ‘제주맘’으로 상표를 등록해 프리텐 하임 살리마·로스트햄·숙성햄·구텐버거스테이크 등과 제주맘 강황소시지·떡갈



▲ 평화의 마을 생산품

비빔 소시지·조릿대소시지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제품은 쇼핑몰(www.jjmom.net)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 인증현황

평화의 마을의 꾸준한 노력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인정을 받았다. 2007년에는 축산물 가공 HACCP 지정(햄, 소시지, 분쇄가공육, 양념

육)됐으며, 2008년에는 제주도 1호 사회적기업인증, ISO22000인증, 2012년에는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2013년에는 LOHAS 인증 및 LOHAS Awards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IFFA(독일육가공박람회 금메달 6개부분) 및 특별상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제주우수제품 품질(JQ)마크를 받았다.

# 제10회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주인공을 찾습니다

## 사회복지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이란?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활동기록을 새겨 그 헌신과 노력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1. 추천대상**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  
(현재 활동중인 개인, 타계한 자원봉사자)

**추천기준** 봉사실적의 헌신성, 수공기간, 전문성, 창의성, 확산성 등 고려하여 아래 사항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해당될 경우 추천가능

- 자원봉사 활동기간 20년 이상 활동중인 자
- 관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만 7년 이상 활동중인 자
- 인종관리 DB시스템(VMS)상 봉사기간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자
-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중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봉사활동 도중 심각한 상해를 입은 자

**2. 추천자격** 제주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대표

**3. 제출서류** 추천서,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추후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 11. 1(금) ~ 2019. 11. 22(금) 17:00 - 문의전화 : 064) 726-5786, 070-4726-6800  
- 신청방법 : 이메일 (jejubokji@hanmail.net) 제출

**5. 명예의 전당 등재자 혜택** - 등재기념 순금배지 시상 - 공적 및 활동사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 등재기념패 증정 '명예의 전당' 및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코너를 통해 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명예의 전당  
김영순



제2회  
명예의 전당  
원석철



제3회  
명예의 전당  
변명효



제5회  
명예의 전당  
한경찬



제6회  
명예의 전당  
정정숙



제7회  
명예의 전당  
고명대



제8회  
명예의 전당  
전용운



제9회  
명예의 전당  
고관용

※ 제4회 명예의 전당 대상자 없음